

시들어가는 국산 카네이션 시장

가격 급등에도 수입 늘고 거래 줄어 농가 입지 좁아져 비누꽃·프리지보드 플라워 등 대체 선물 판매도 급증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특수를 앞두고 카네이션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화훼농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값이 올라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소득증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 경매 시세에 따르면 카네이션의 평균가격은 최근 1개월간 1속에 5349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101원보다 30.43%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혼합 대륜'은 지난해 6423원에서 올해 7525원으로 17.16%가 올랐고,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은 '혼합 스프레이'는 2121원에서 4023원으로 무려 89.68%나 값이 뛰었다.

카네이션 한 줄기에 꽃 한 송이가 피면 '대륜', 여러 송이가 나오면 '스프레이'로 분류된다. 한 송이만 핀 가지가 깔끔해 보이고 꽃 크기도 크다는 점에서 통상 대륜 값이 스프레이보다 비싸다. 대륜은 1속에 20송이, 스프레이는 1속에 10송이다.

이처럼 카네이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국내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지난 겨울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해도 '역대급 한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카네이션의 거래량도 확연히 줄어 들었다. 올해 최근 한 달 aT화훼공판장을 통해 거래된 카네이션은 총 18만1622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3709속보다 18.81% 줄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혼합대륜도 3만5788속에서 3만435속으로 14.96%가 감소했다.

카네이션 가격이 올랐음에도 국내 화훼농가는 그저 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콜롬비아산을 필두로 한 카네이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T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통계에 따르면 카네이션 수입 금액은 2016년 255만 3000달러에서 지난해 362만 달러로 106만 7000달러가 늘어났다. 6년 전인 2012년 수입금액 160만 달러와 비교해 지난해 2배 이상(126.25%)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카네이션 가격이 오르면서 카네이션 생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지마켓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 증감률을 집계한 결과 비누꽃 모양을 낸 선물인 '비누꽃'은 무려 125% 판매신장을 기록했다. 또 생화에 특수 가공처리를 해 오랜 기간 시들지 않게 만든 '프리지보드 플라워' 역시 97% 증가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용돈을 보기 좋게 담아 부모님께 드리도록 마련된 '용돈봉투'도 38% 올랐다.

값비싼 카네이션 생화를 구입·선물하는 것보다 상징성과 실용성을 갖춘 상품을 선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남지역 화훼작목반 관계자는 "점점 카네이션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탓에 걱정이 크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까운 분께 진심을 담은 국내 카네이션 생활을 선물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계한 결과 비누꽃 모양을 낸 선물인 '비누꽃'은 무려 125% 판매신장을 기록했다. 또 생화에 특수 가공처리를 해 오랜 기간 시들지 않게 만든 '프리지보드 플라워' 역시 97% 증가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용돈을 보기 좋게 담아 부모님께 드리도록 마련된 '용돈봉투'도 38% 올랐다.



롯데백-KT '동구 활성화' 의기투합

바자회 수익금 기부·공동봉사활동 등 추진

롯데백화점 광주점(부문장 김정현)과 KT(노조위원장 정광우)는 지난 4일 광주 동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동구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KT는 정기적인 바자회 열고 수익금 기부, 공동봉사활동을 통한 각종 사회공헌활동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부문장은 "동구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은행 1분기 실적 '호조'

당기순익 전년비 5.4% ↑...경영 효율성 지표 상승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공시 기준)으로 451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350억원이다. 광주은행의 1분기 영업이익은 5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으며 분기순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 대비 0.07%포인트(p) 상승한 2.40%를 기록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 경비율(CIR)은 5.1%p 증가한 44.3%, BIS 자기자본비율은 1.26%p 증가한 16.20%를 나타냈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안정적인 순이익을 올린데는 저원가 성예금의 증가와 자산구조의 개선으로 순이자마진이 꾸준히 상승했고, 따라서 이자이익이 1분기 기준 큰폭(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으로 늘었으며 고정이 하여신비율이 0.66%를 기록해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강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JB금융그룹(회장 김한)은 올 1분기 연결 누적기준 8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한 실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

산자부 내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50% 할인과 환율이 상승해도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 3배 확대 등이다.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시행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일정

을 고려해 오는 6월 15일까지 시행하되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80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12 13 18 31 32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266,061,969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3,661,157	53
3 5개 숫자일치	1,370,623	2,075
4 4개 숫자일치	50,000	105,602
5 3개 숫자일치	5,000	1,700,112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시 5% 돌파

시장금리 상승 영향...美 국채금리 상승에 금융채 금리도 들쭉

시장금리 상승세에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5%를 넘어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8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3.67~5.01%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상단이 5%를 넘는 것은 3월 1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전주와 비교하면 4bp(1bp=0.01%포인트),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인 3.52~4.86%와 비교하면 3주 만에 15bp가 오른 것이다.

다른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신한은행이 8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9~4.90%이며, KB국민은행의 경우 3.67~4.87%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4.75%, KEB하나은행의 경우는 3.527~4.727%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가산금리를 1.08%에서 0.93%로 15bp 인하했고 하나는 행도 지난달 2일 가산금리를 16bp 내렸지만, 이런 인하분을 대부분 상쇄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최근 몇 달째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하기도 했지만, 시장금리의 빠른 상승세로 치솟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24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2014년 1월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한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2일 2.590%에서 이달 4일 2.767%로 뛰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가 지금 추세대로 오르면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조만간 5%에 도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